

야구

8

2019년 11월 4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LG마운드 확 바꾼 최일언 코치 김경문호에도 ‘일언매직’ 기대



새 얼굴이 대거 승선한 야구국가대표팀에서도 ‘일언매직’이 빛나고 있다. 2019시즌 LG 트윈스는 약점으로 지적된 불펜진의 최일언 코치 불안 요소를 완벽히 지웠다. 최일언 투수 코치의 공이 컸다. 오랜 지도 경력과 특유의 은화한 리더십으로 어린 선수들의 잠재력 폭발을 차례로 이끌었다. 최 코치가 심어주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삼은 신에 정우영은 4승 16홀드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보냈고 35세이브를 수확한 고우석은 결출한 마무리 투수로 자리를 잡았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탄탄해진 마운드는 LG가 3년 만에 포스트시즌 무대에 오르는 배경이었다.

최 코치는 프리미어 12에 출전하는 대표팀에서도 투수들의 특급 조력자 역할을 도맡고 있다. ‘일언매직’의 첫 수혜자는 옛 제자인 박종훈(SK 와이번스)이었다. 과거 SK에서 박종훈을 지도한 기억을 잊지 않았다. 최 코치는 대표팀에서 재회한 박종훈이 스스로의 장점을 되새길 수 있도록 옛 이야기를 꺼내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최 코치와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은 박종훈은 상무와의 연습경기, 푸에르토리코와의 2차 평가전서 모두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하며 최상의 컨디션을 과시하고 있다. 세대교체의 과정에 있는 대표팀은 마운드에도 국가대표 경력을 쌓아나가야 할 신진 세력이 여럿이다. 기술 지도와 함께 투수들의 마음을 매만지는 최 코치의 일언매직이 백방으로 발휘될 수 있는 무대다.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편집 | 실송수 기자 sss23@donga.com

안치용 전력분석원의 여기는 멕시코 | ‘프리미어12’ A조 전력분석

만루포 광! 멕시코 ‘매운 고추’ 퀴로스 경계1호

미국·멕시코·네덜란드·도미니카 등 강호

작은 체구 불구하고 위력적 파워 과시 ‘홀런 4방’ 미국도 장타력 돋보여 투수 약한 도미니카 공격력 부족 밴덴헤클 빠진 네덜란드 기대이하

안치용 KBSN 해설위원은 10월 30일부터 멕시코 과달라하라에 머물며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A조 경기를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번 대회는 2020도쿄올림픽 예선으로 열린다. 한국은 슈퍼라운드에서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적을 올려야 올림픽 진출 티켓을 확보할 수 있다. A조는 세계랭킹 2위 미국, 6위 멕시코, 8위 네덜란드, 12위 도미니카공화국 등 야구 강국이 모여 있다. 안 위원은 3일(한국시간) 과달라하라에서 개막한 미국-네덜란드, 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의 첫 경기를 지켜본 뒤 전력분석과 현지 분위기를 생생하게 스포츠동아를 통해 전했다.

한국 대표팀 티셔츠를 보고 메이저리그에서 434개의 홈런을 친 앤드류 존스 네덜란드 벤치 코치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했다. “봉준근은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나?”라며 애플랜다 브레이브스에서 함께 뛰었던 시절을 이야기 했다. 사진을 보



안치용 KBSN 해설위원은 10월 30일부터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프리미어12 A조 경기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슈퍼라운드에 진출하면 만루 상대이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은 필수다. 3일 미국과 네덜란드의 개막전. 사진제공 | 안치용

여줬더니 “루키 시절이 떠오른다”며 반가워했고, 공에 사인을 한 뒤 꼭 전해달라고 했다. KIA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로저 버나디나도 인사하며 “KBO리그에서 다시 뛰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네덜란드 코칭스태프 한 명은 “빅조이(최희섭)가 타이거즈 코치가 됐다고 들었다. 내 친구다”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다.

네덜란드 팀의 분위기는 활기가 넘쳤지만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 선수들이 대표팀에 선발될 수 없는 규정의 영향으로 전력은 예상보다 더 약했다. 일본 소프트뱅크 호크스 릭 밴덴헤클도 이번 대표팀에는 합류하지 않았다.

●잠재력 큰 미국, 네덜란드는 약세

반대로 미국은 장타력이 돋보였다. 선두타자 드루 워터스(애틀랜타 트리플A)는 1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홈런을 쳤다. 3회 조던 아렐 1점 홈런, 로버트 달백의 만루홈런으로 크게 앞섰고 결국 9-0으로 승리했다.

선발투수는 피츠버그 파이리츠 트리플A 소속인 우완 코디 폰스로 5이닝 2안타 무실점 투구를 했다. 40인 로스터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더블A와 트리플A를 오가는 젊은 선수들의 장타력, 그리고 빠른 공이 돋보였다. 네덜란드가 상대적으로 전력에 약해 더 일방적인 경기가 됐다.

감독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표팀 15연승을 기록한 감독이 됐다.

17년 동안 깨지지 않은 이 기록에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김경문 감독이 도전한다. 김 감독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최종예선 대만전을 시작으로 올림픽 결승전 승리까지 무려 10연승을 마크했다. 이 10연승에 포함돼 있는 올림픽 9전 전승 금메달 신화는 이미 많은 야구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이야기다.

김 감독은 이후11년 만에 다시 태극마크를 달았다. 선동열 전 감독에 이어 2대 야구전임 감독으로 현장에 복귀했다. 다가오는 프리미어12에서 6연승을 추가하면 주 감독의 국가

미국은 4년 전 프리미어12에서 한국과 결승전을 치른 상대다. 객관적인 전력은 한국이 앞서지만 미국 선수들의 잠재력은 경계해야 한다.

●다크호스 멕시코의 3번·4번

오후12시에 시작된 미국-네덜란드 경기 종료 후 현지시간 오후 7시 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 경기를 기다리며 한국에서 가져간 컵라면을 정말 맛있게 먹었다. 이후 비가 내려 경기가 지연됐고 결국 중단됐다. 경기는 멕시코의 6-1, 6회 강우콜드게임 승리로 끝났다. 멕시코 역시 장타력이 돋보였다. 4번 에스테반 퀴로스는 체구가 아주 작는데 파워가 대단했다. 아직 빅리그 경력은 없는데 트리플A에서 19홈런을 기록했다. 3회 1사 만루홈런을 때렸는데 중앙 펜스를 넘기는 타구였다.

3번 크리스티안 비야누에바도 돋보였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 4번 타자 출신으로 올 시즌 일본 요미우리 자이언츠에서 뛰었다. 힘이 좋은 타자다. 특히 좌투수에게 광장히 강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비야누에바와 함께 한신 타이거즈에서 뛰 이프런 나바로 등 일본리그 타자들을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미니카공화국은 LG 트윈스 카를로스 페게로가 4번으로 선발 출장했다. 공격력 뿐 아니라 마운드 전력도 짜임새가 부족했다.

멕시코 과달라하라 | 안치용 국가대표팀 전력분석원

“김경문 감독님, 국대 사령탑 최다연승 깨 주세요”(10연승)

주성노 감독 15연승이 최고기록 ‘프리미어12’ 최대 8G 소화 가능

프로야구선수들이 국가대표로 국제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부터다. 대학생 위주로 꾸려졌던 이전과 달리 이때부터는 박찬호(LA 다저스), 박재홍(현대 유니콘스), 조인성(LG 트윈스) 등 프로선수들이 대표팀에 합류했다.

당시 대표팀은 인하대 사령탑이었던 주성노 감독이 이끌었는데, 주 감독은 6전 6승이



김경문 감독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김용용 감독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김인식 감독과 치른 대표팀은 2002년에 다시 주 감독과 인연을 맺었다. 그해 쿠바 대륙간컵대회에서 이탈리아와의 4차전까지 모두 승리했고, 주

리는 깔끔한 승부로 대표팀에 금메달을 안겼다. 이후 1999년 서울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에서도 5전 5승으로 우승을 차지해 대표팀 11연승을 내뿜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을 김용용 감독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을 김인식 감독과 치른 대표팀은 2002년에 다시 주 감독과 인연을 맺었다. 그해 쿠바 대륙간컵대회에서 이탈리아와의 4차전까지 모두 승리했고, 주

sports2i

경기 결과

프로축구

<3일>

●파이널 라운드 그룹A 팀순위

득점

순위	팀	승점	승	패	무	득점	실점	선수	팀	득점
1	울산	78	23	4	9	69	34	① 타가트	수원	18
2	전북	75	21	3	12	70	31	② 주니오	울산	18
3	서울	55	15	11	10	53	46	③ 무고사	인천	14
4	대구	51	12	9	15	42	35	④ 김보경	울산	13
5	강원	50	14	14	8	54	53	⑤ 세징야	대구	13
6	포항	50	14	14	8	42	48			

●파이널 라운드 그룹B 팀순위

도움

순위	팀	승점	승	패	무	득점	실점	선수	팀	도움
1	상주	52	15	14	7	45	50			
2	수원	45	11	13	12	41	43			
3	성남	42	11	16	9	26	37	① 문선민	전북	10
4	인천	30	6	18	12	31	54	② 세징야	대구	9
5	경남	29	5	17	14	41	60	③ 원필승	포항	9
6	제주	27	5	19	12	42	65	④ 김승태	전북	8
								⑤ 김보경	울산	8

●경기결과

DGB대구은행파크 대구 0 0-1 2 전북 12,117명													서울W 0 0-0 0-1 1 울산 17,812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7 2 수령 4 5						7 8 수령 4 3						6 5 수령 5 4						6 5 수령 5 4							
1 1 오프사이드 0 0						1 0 오프사이드 2 2						0 0 오프사이드 0 1						0 0 오프사이드 0 1							
4 6 파울 3 7						1 7 파울 4 4						2 8 파울 6 4						2 8 파울 6 4							
4 2 코너킥 2 2						7 5 코너킥 2 2						4 3 코너킥 1 0						4 3 코너킥 1 0							
▲골=이동국(전10분, 도움=손준호), 로베르(후1분, 도움=정혁, 이상 전북) ▲경고=김선민, 박병현(이상 대구), 문선민(전북)													▲골=김보경(전37분, 도움=김민혁, 상주) ▲경고=이재형, 배기용(이상 경남)												
수원W 수원 0 0-0 0-0 성남 4,876명													창원FC구장 경남 0 0-1 0-0 1 상주 3,111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11 8 수령 2 6						6 5 수령 5 4						6 5 수령 5 4						6 5 수령 5 4							
1 1 오프사이드 1 1						0 0 오프사이드 0 1						0 0 오프사이드 0 1						0 0 오프사이드 0 1							
4 4 파울 9 7						2 8 파울 6 4						2 8 파울 6 4						2 8 파울 6 4							
8 3 코너킥 0 3						4 3 코너킥 1 0						4 3 코너킥 1 0						4 3 코너킥 1 0							
▲골=임을 ▲경고=이은범(성남)													▲골=김민혁(전37분, 도움=김민혁, 상주) ▲경고=이재형, 배기용(이상 경남)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프로축구														
포항						제주								
포항		포항		0-1		2-2		강원		11,652명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전	후	경기내용	전	후
0	0	오프사이드	0	0	0	0	오프사이드	0	0	1	2	오프사이드	0	1
7	7	파울	10	7	10	7	파울	8	7	6	9	파울	8	7
3	5	코너킥	2	2	2	3	코너킥	1	3	1	3	코너킥	1	2
▲골=윌루프(전23분, 도움=원필승), 심동운(후46분, 도움=원필승, 이상 포항), 이현식(전41분, 도움=원필승), 임비어(후15분, 도움=김현목, 이상 강원) ▲경고=이수빈(포항), 이영민, 김지현(이상 강원)													▲골=마그노스16분, 도움=조용환, 이창민(후34분, 도움=아킬라르, 이상 제주) ▲경고=김지후, 조용환(이상 제주), 이재성, 김동민, 영종재(이상 인천)	

남자프로농구

〈3일〉

●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1	전자랜드	10	8	2	0.800	0	4승
2	SK	10	7	3	0.700	1	1패
3	DB	10	7	3	0.700	1	1패
4	KCC	12	8	4	0.667	1	1승
5	KT	10	5	5	0.500	3	1패
6	인삼공사	11	5	6	0.455	3.5	1승
7	삼성	10	4	6	0.400	4	2승
8	모비스	10	3	7	0.300	5	2패
9	오리온	11	3	8	0.273	5.5	2패
10	LG	12	3	9	0.250	6	2패

●부문별 중간순위

평균 득점				평균 도움				평균 리바운드			
선수	팀	득점	평균	선수	팀	도움	평균	선수	팀	리바운드	평균
① 해리스	LG	29.3	1	① 허훈	KT	6.4	1	① 라건아	모비스	14.9	1
② 라건아	모비스	21.7	2	② 이창현	KCC	6.2	2	② 라렌	LG	11.5	2
③ 워니	SK	21.7	3	③ 시가재	LG	6.1	3	③ 워니	SK	10.3	3
④ 라렌	LG	21.7	4	④ 최준용	SK	4.8	4	④ 할로웨이	전지연	10.2	4
⑤ 미네라	삼성	19.7	5	⑤ 김석영	SK	4.7	5	⑤ 윌리엄스	KCC	9.7	5

●경기결과

KCC	73	46	26-20 20-15 12-11 15-21	35	KT	(5승5패)
전자랜드	85	45	20-26 25-25 13-12 27-18	51	LG	(3승3패)
		40		30		

삼성 (4승6패)	35 82 47	19-12 16-21 20-29 27-12	33 74 41	오리온 (3승8패)
인삼공사 (5승6패)	49 97 48	25-32 24-23 32-17 16-16	55 88 33	SK (7승3패)